

‘KREI리포터’ 경기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경기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청평면 일대 마을 견학
-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1:30~15:00
- 장 소: 경기 가평군
- 참 석: 총 17명
 - 경기지회 리포터(15명): 권순무, 김경태, 김영수, 김용덕, 왕한국, 이기숙 외 2명, 이길숙, 이현복, 임광혁, 장문호 외 1명, 조상균, 최현희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2:00	등록	
12:00~13:00	간담회	청평면 호반로 870
13:00~14:00	점심식사	효정카페
14:00~15:00	마을 견학	청평면 일대

2. 주요 논의 내용

-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찬반여론
 - 김영수: 과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당시 지원금액이 일체 없었음.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 보급을 고정적 수입원으로 삼아야 할 것 아닌가. 20년간 정기적으로 부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단 이미 난립된 시설 정비는 안 하고 계속해서 신설하고자 산을 허물고 있는 실정. 농업인은 자세한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를 것. 태양광 시설의 품질, 효율성, 타당성, 전문기술 등을 연구해 농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상담센터 만들어야 할 것. 논밭 지붕 위, 축사 위에 설치하여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될 것.

- 이현복: 태양광 시설 보급은 20년이라고 하면 기계 설치업자는 좋겠지만 우리 이익은 별로 없을 것. 특히 임야 훼손, 오염물, 경관을 해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많을 것. 에너지 개발이 아닌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 계속해서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쪽으로 무한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 아끼고 농업인은 농촌의 환경적 기능을 매우 가치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 김정태: 태양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5년 간 일한 경력 있음. 농촌의 경제를 살리려면 태양광 보급에 찬성해야 할 것. 개발행위에 대한 오염물질이 문제지만 전선의 납성분이 다일뿐, 태양광 자체는 오염과 관련이 적음. 태양광 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폐기물, 원자력 업체 등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만 보여주고 있음. 독일에서는 부가수익으로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고정적인 수익으로 매력적인 사업임. 그 전에는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가 되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됨. 다만 농협처럼 출자해 공동발전사업으로 추진해 배당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 농업인을 위해 풀어주었는데 외지인이 와서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 안 될 것.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하기 위해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
- 이현복: 과거에 한전에서 심야전기를 20~30년 유지시킨다고 적극 권장했으나 전기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점 그 값을 올리고 이제는 심야전기를 없애도록 하고 있음. 태양광 보급시설도 20년 보장기간을 신뢰할 수 없음. 또한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우려되며 미래보장성이 결여되어 있음. 업자는 살고 사용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생각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함.
- 김용덕: 우량농지를 제외하고 비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우량농지 한가운데 설치한 것을 볼 때 농업인으로서 흉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음.

- 왕한국: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나 무분별한 설치로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또는 폐기 후 처리 등 추후 대안이 없을시 또 다른 병폐에 다다를까 걱정이 됨.
- 장문호: 농촌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설치되어 농촌경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 임야나 주거지역 근처에 설치되는 것은 환경문제와 또 다른 위험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함. 주택지붕이나 창고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
- 임충빈: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마구잡이로 설치하여 초토화를 만들까 우려됨. 값싼 산지에 하니 경사가 심해 비가 오니 황토물이 개울을 메우고 하상이 높아져 내년 여름이 걱정임. 산지 개발허가를 꼼꼼히 하고 과장된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 20~30년 후에 그 폐기되는 쓰레기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망칠 것이라 우려됨. 농촌에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음.
- 임광혁: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존에 하던 농사를 유지하면서 원래의 농사 수확물에 전기 수확으로 인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토지비가 포함되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논, 밭, 과수원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 및 발전시설 설치 비용만 추가하면 가능하여 잉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또한 농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창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음.

○ 경기지역 농업이슈 및 현장여론

- 김용덕: PLS 시행은 친환경 농사를 권장하는 것인데, 친환경 농약은 그 효과가 미비하면서도 가격이 비싸. 제초제는 비싸고 인건비도 높은 데다 제초제 제조업체는 소규모 영세해 개발이 더뎢. PLS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및 대기업에서 친환경 농약 개발 추진에 힘써야 할 것.

- 우리 남양주 지역은 경지정리를 한 우량농지인데도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려고 지구지정을 발표함.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사일을 게을리하게 됨. 국토부에선 우량농지를 마구잡이 다른 시설을 건립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불구경하는 격임. 그리고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 이기숙: 쌀 70%, 메주 30%를 이용해 감홍로주 제조. 쌀과 메주가격 높아 메주를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다 최근 토종씨앗을 구해 300평에 파종하며 국산품을 이용해 가공하려 노력. 우리 씨앗을 보존하고픈 마음은 크지만, 가격이 높아 고민. 파주시는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를 팔아 공장이 들어서려는 사례가 많음. 농업예산을 줄이는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해 아쉬움. 농업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농촌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사업 유치가 필요.
- 김영수: 앞으로 이대로 가서는 농업은 안 될 것.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에 대한 연구가 시급. 폭염과 냉해를 반복한 기후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 야콘 300평을 심었는데 1/10만 수확. 기후변화 피해금액을 지원해야 농업은 지속가능할 것. 또한 현재의 실정으로 자급자족의 농업을 한다는 것은 농자재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능 실정. 소농의 경우 적자농업을 면치 못하고 소득 작물은 거의 없음. 인건비는 상승되었으나 농업의 노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 확대 등으로 주식이 해결되어 고되고 힘든 일은 임금과 관계없이 기피되고 있음. 국가공무원도 자기 자리 보존에 급급하고, 그 외는 관심이 없음. 책임 회피, 소극적 업무수행, 규정 및 원칙주의 등으로 융통성이 부족. 지역 특화 작물재배를 개발하고, 보급 및 지원해주기 바람.
- 조상균: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밀원이 제일 중요. 산업 발전과 농약 사용 증가, 칩덩쿨 및 가시발 증가 등 생태계 파괴 문제로 밀원 확

보가 점점 어려워짐. 정부차원에서 정책이 필요.

- 이길숙: 쌀 80kg 24만 5천원으로 추곡수매가가 매우 낮아 농민분쟁 1호의 문제로 예민함. 농협 자체 수매가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낮출 수 없으며, 농가는 생산비에 못 미쳐 적자가 계속 되고 있음. 자수성가해서 논농사 했는데 20년을 수매해도 그 논 값이 안 나옴. 조수입을 생각하면 밭작물 보다는 수도작이 유리하기 때문에 밭작물 전환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음.
- 장문호: 올해 가평 잣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송진을 내뿜어 잣생장이 부진. 잣은 1년 반 만에 따는 해결이 품목인데 내년에도 수확이 적을 것이라 예상. 잣은 15m이상 나무에 올라가 일일이 따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인건비 투입이 많음. 기후변화로 해발 800m 이상 되어야 해서 국내 토종상품인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될지 미지수임. 기후변화 및 인건비 상승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 그리고 농업은 지역사회와 좋은 상생관계로서 지속되어야 필수산업이라 생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보조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 조남상: 대추방울토마토는 상반기 수확이 좋았음. 2차분 정식 들어간 이후 폭염으로 꽃이 시들어 수확이 늦어져 갈수록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어려움이 많음. 농산물 최저가격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판로개척에 대안이 필요. 직거래 판매를 권장하지만 작은 농가에서는 직거래마저 어려워, 직거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왕한국: 우리 시흥시는 도농복합지역이나 호조벌이라는 간척지에 수도작이 주농업이며 다른 특작으로는 연근과 포도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퍼주기식 지원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 비전 있는 농업 기반을 제공해 10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할 것.

- 권순무: 강화도는 고려시대 연꽃이 많아 연개소문 때 연화도로 불리었음. 그 명성에 맞게 농약을 하지 않는 친환경 연을 전략산업으로 유인책을 마련. 강화도는 약쑥, 마늘, 인삼, 말, 순무의 시배지로서 향토산업으로 지정, 힐링아일랜드를 만들고자 적극 추진 중임.
- 최현희: 청년농업인 육성의 단기적 해결을 문제 인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주길 바람.
- 임충빈: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정의 현안들이 큰 것만 거론되고 있음. 지불제 재검, 고향세 도입, 고령화 농업인, 농촌·농업의 단절, 안전한 농산물, 정부의 인증제의 허실 등 농업 정책당국자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음. 분야별로 전문가적 안목을 더 키워야 할 것. 정부는 농업과 우리의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와 농업을 더 생각해야 할 때임. 경기도 및 수도권 영농은 수도권에 있어서 지대(地代)가 높아 영농에 애로가 많음. 도시 자본가들이 농지를 차지해서 영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차농, 휴경지, 형식적인 영농 등 실상을 파악해서 농지를 최대한 활용, 식량 증산을 하여야 하는 곳이 수도권인데도 농정은 뒤처지고 있어서 생산성이 낙후되고 있음. 시설 재배, 스마트팜 등을 많이 투자, 활용해서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야 할 것. 지산지소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비자 중심의 영농을 수도권에서 먼저 실시하여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

○ 기타 논의

- 임광혁: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회장 불참으로 총무가 진행. 경기지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회 회비 운용에 대해서는 밴드에 공유하고 있음. 연구원 지원과는 별도로 경기지회 자체적으로 일 년에 4만원 씩 지회 회비를 모으고 있음. 이는 회원 경조사비로 사용되고 있음. 간담회 참석에 앞서 미리 전해드린 자료에 현장의 소리를 고민하고 작성해 오면 회의진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람.

- 장문호: 회원들이 너무 바빠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기 아쉽다는 생각. 함께 1박2일로 모여서 워크숍을 갖는다던지, 지역에서 종종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경기지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 권순무: 2019년 상반기 간담회는 인천 강화군에 본인 농가에서 개최토록 하겠음. 많은 참석을 바랍.

3. 이모저모

